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5일 화요일 음 8월 5일 (12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20/27℃

모레

흐림

21/28℃

월드뉴스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 낮 최고기온은 26-28℃로 예상된다. 산지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다.

해돋이 06:17

해질 18:41

달돋이 10:15

달질 20:40

물때

만조 00:23

13:15

간조 07:09

19:42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트럼프, AI ‘속도 조절론’에 부정적

중국 상대 우위 유지 원해

인공지능(AI) 기술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이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현지시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상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AI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인간이 통제하지 못할 수준까지 내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장치를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제거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세력이 많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의 중심에는 AI 분야가 중국과의 핵심 경쟁 영역이라는 전제가 있다.

중국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AI에 투자하는 동시에 규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민간의 AI 기술 발전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문영택
(사)칠토래비 이사장

비경과 비사들로 넘쳐나는 제주도에서 탐라제주의 역사문화 10선을 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고 도전이다. 그럼에도 글로 선보이는 것은 이 땅의 역사문화를 널리 공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됐음이다.

필자가 선정한 탐라제주 역사문화 10선으로는 ▷삼성신화와 1만 8000 신들의 이야기 ▷한라산과 오름들에 깃든 비경과 비사 ▷해상왕국 탐라와 출륙금지령 ▷제주사현과 오현 그리고 탐라제주 향현 ▷김만일과 광해 그리고 김만덕과 정조 ▷3읍성 9진성과 읍성철

탐라제주 역사문화 10선을 말하다

페령 ▷ 1168년부터 1948년까지의 민란·왜변·항쟁 ▷개척 농민사와 제주의 물 ▷일제의 ‘결7호작전’과 노천박물관 모슬포 ▷서당·향교·서원·학교 교육 등이다.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필자가 고른 10선에 관한 대강의 맥락이라도 짚어보자.

물과 불과 바람이 빚어낸 화산섬 중심에 한라산이 있고, 산정호수 백록담을 중심으로 360여 오름들이 중산간은 물론 해안에도, 설치예술처럼 자리하면서 섬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다. 단일지역에서 솟아난 오름의 수로는 제주도가 세계 최다라고 한다. ‘제주 삼다’인 돌·바람·여자에서 양성평등시대를 맞은 지금은, 신(新)삼다로 돌·바람·오름을 칭하기도 한다.

성산일출봉이 오조포구와 터진 목 사이로 바닷물이 오간 섬이었

듯, 종달지미봉 역시 용항포(하도 철새도래지)와 두문포(종달포구) 사이로 바닷물이 오갔던 섬이었다. 터진목이 정의현 읍성인 ‘구수산고성(舊首山 古城)’의 성담 등으로 일제에 의해 메워진 반면, 지미봉 남쪽을 휘감아 흐르던 ‘종달리 바다만’은 패총과 갯벌, 근현대의 염전과 간척 등으로 긴 세월을 거치며 서서히 메워져 오늘에 이른다. 종달리 패총에서는 약 2000년 전 탐라에서 생산된 토기를 비롯해 백제와 통일신라시대의 자기와 단검 등도 출토됐다. 이를 근거로 고고학자들은 종달리 포구를 천년 이상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추정한다.(새롭게 쓴 탐라사, 202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발간)

승자의 기록이라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럼에도 현상에서 본질을 찾아내듯 우리는 진정한 역사관 내지 목민관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흡모할 대상을 찾아내 공유하는 문화를 가꾸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사명이자 역할일 것이다.

항해술과 조선술이 뛰어난 탐라는 일본과 중국 등과도 교류를 했고, 제주는 오랜 세월 외침과 수탈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지난한 삶을 이어온 저항과 끈기의 섬이자, 자연재해를 극복하며 역척스럽게 살아온 변방이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 탐라제주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한데 어울려온 데는 숨은 정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이고 창의성이다. 그리고 어울림과 수놓음이고 세계로 나아가려는 도전정신이 아닐까.

열린마당

가을의 시작,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김지희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장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일상도 한결 여유로워지는 시기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나 주택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간이 지

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9월 23일까지 납부를 완료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21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증정한다.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납부의 편리함은 물론 뜻밖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무더위를 견뎌낸 우리에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온 것처럼, 성실한 납세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을이 되길 기대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길 바란다.

바다를 참되게 즐기는 베테랑의 자세



문항선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매칠 전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안가를 지나다가 아찔한 풍경을 목격했다. 집어삼킬 듯 솟구치는 파도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갯바위와 방파제 끝자락에는 긴 낚싯대를 쥔 낚시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바람이 치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날에 대어(大魚)가 나온다는 속설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멀리서 그 위태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서늘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일렁이는 그들의 모습은 바다를 제압하려 나선 강태공이 라기보다, 거대한 자연 앞에 놓인 작은 ‘미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해마다 기상 악화 속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오랜 세월 바다를 다닌 베테랑이니까’, ‘곧 나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과신이 늘 판단을 가린다.

특히 잦은 이끼가 덮인 갯바위나 구조장 내부로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한 테트라포드는, 거센 파도가 덮치는 순간 헤어날 수 없는 감옥이자 덫으로 변한다. 아무리 숙련된 낚시객이라 할지라도 솟구치는 너울성 파도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낚싯대를 쥐고 바다와 맞서는 순간, 자신도 파도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베테랑의 기술은 거친 풍랑과 무모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미련 없이 체미를 접고 돌아설 줄 아는 ‘결단’에 있다. 또한 최소한의 생명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통제 구역에 발을 들이지 않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다를 참되게 즐기는 이의 자세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제일사

신한은행

전농로 →

1중앙로

NAVER

제일사

검색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9시~PM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광양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